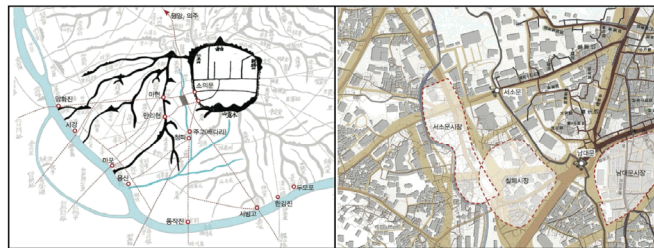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Seosomun Shrine History Museum



조선시대 상품 유통경로와 대상지 관계

서소문시장과 칠패시장 위치



1914 경성부시가강계도

1927 경성시가도

1970년대 항공사진

2000년대 항공사진

SITE

서소문역사공원
서울시 중구 의주로2가 16-72 서소문역사공원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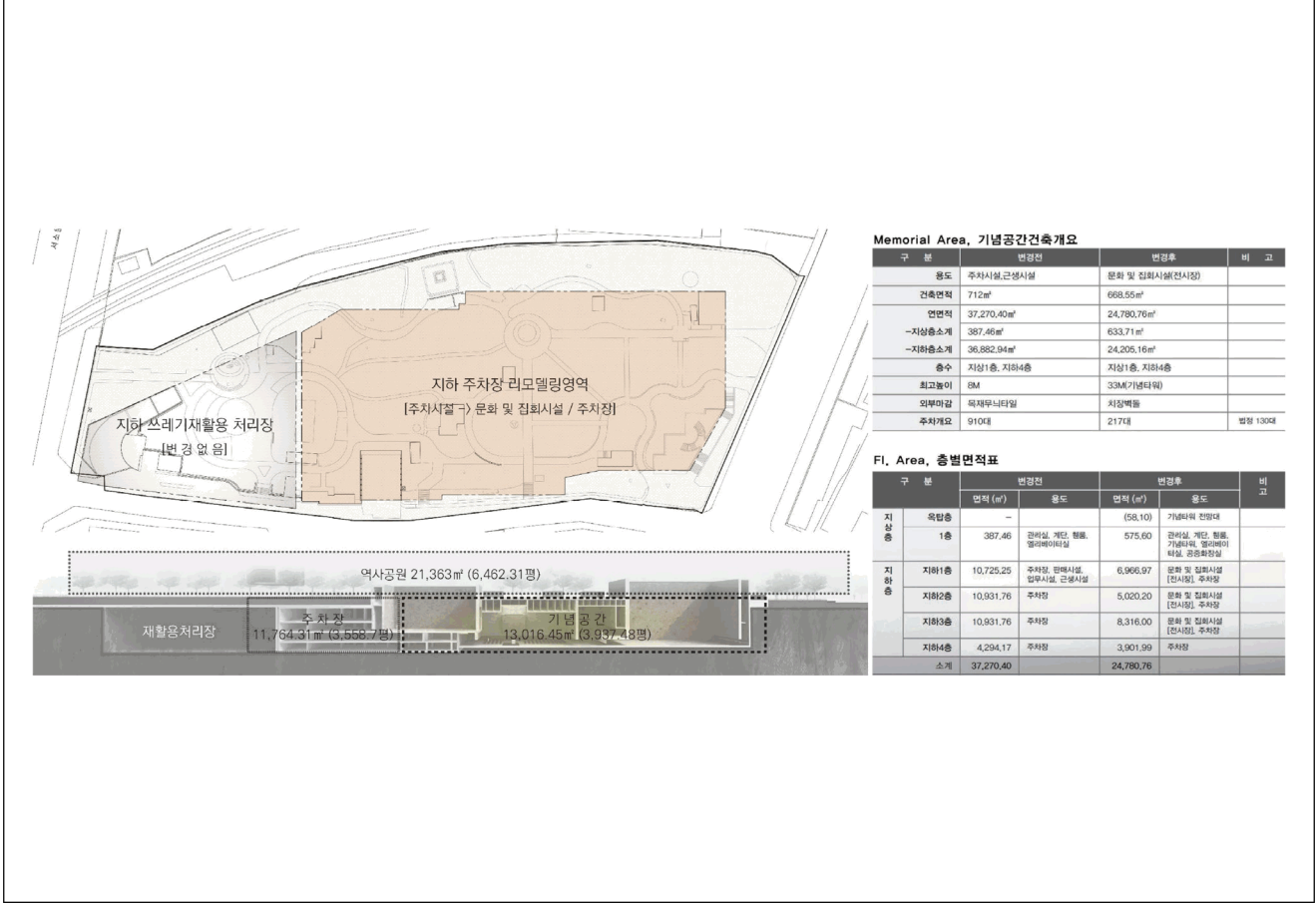


2

현황



3



Introduction

조선 중기이후 400여년동안 국사법들의 처형장으로 이용되었기에 서소문역사공원은 숨힌 예찬이 서린 장소이다. 특히 1801년 신유박해부터 1866년 병인박해에 이르기까지 산령과 산양을 견지했던 많은 천주교인들이 처형된 천주교 박해의 산 장소였고, 이를 거리 44인 성인이 시성되었던 한국천주교의 성지중의 성지로서 자리매김했던 장소이다.

이 장소는 1973년 근린공원으로 지구 지정되면서 공공의 휴게 공원으로 발취게 되었지만, 경의선 철로와 서소문 고개로 인해 접근로가 차단된 음지의 공간으로 전락하였고, 중구의 재활용쓰레기처리장, 900여대의 공영주차장 등 이 공원 하부에 건립됨으로써 시민의 휴식공간으로서의 한계를 드러냈던 장소이다.

천주교성지 vs 공공 공간
가장 공공적인 장소는 그 지역의 지나온 역사와 장소가 품고 있는 깊이를 소중히 발휘해 고유의 분위기로 펼쳐질 때에서야 비로소 그 공공적 가치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한국천주교의 성지인 이 장소에 그 땅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담아내는 일만이 천주교인들만의 성소 장소로 뿐만 아니라 서울과 서울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가치 있는 장소로 거듭나는 가장 유효한 방법일 것이다.

모두가 공유하는 장소는 모든 특성을 희석시켜 무감각한 곳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특성의 가치를 발휘해 모두와 함께 그 독특한 분위기를 함께 공유하는 자리로 만드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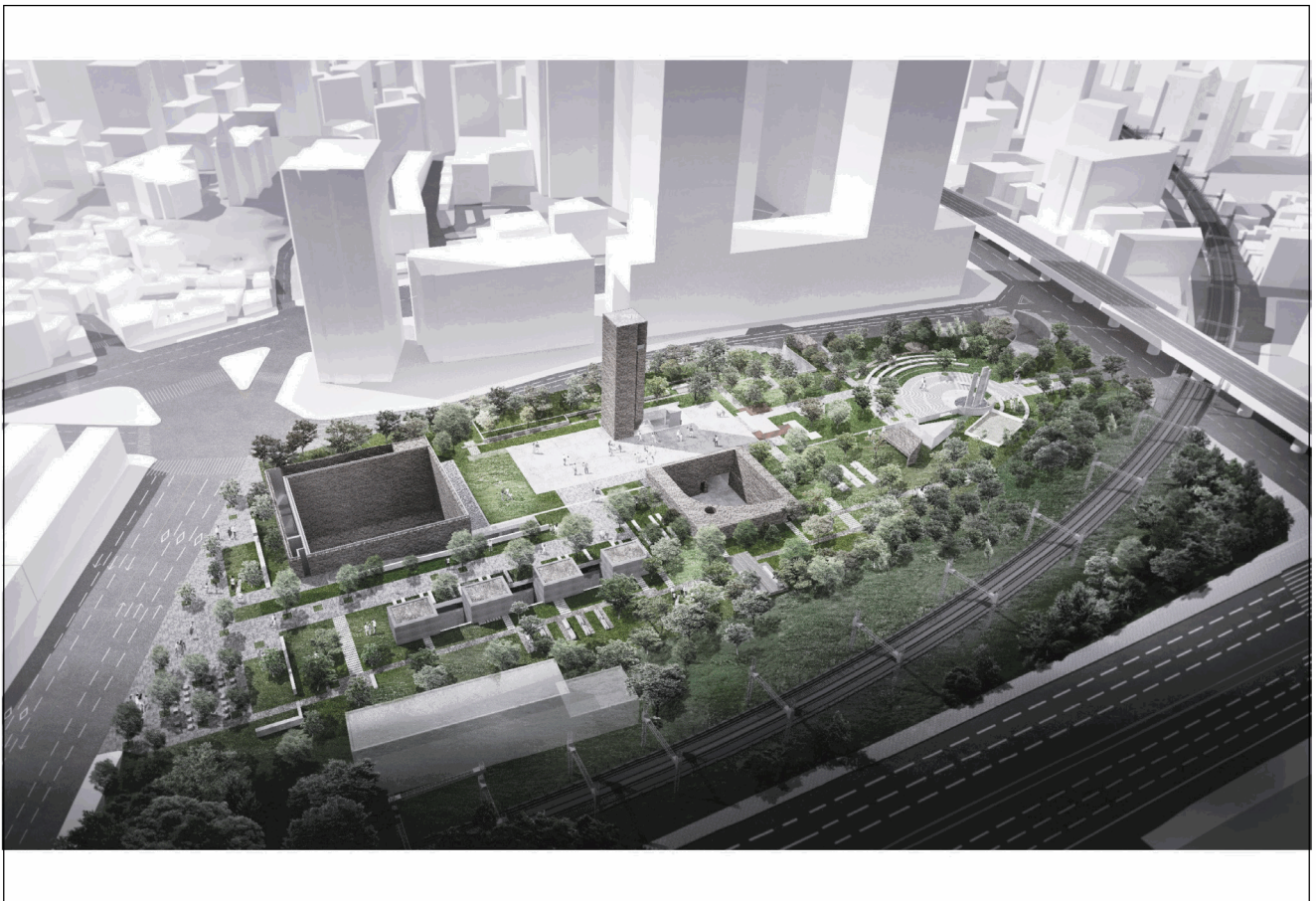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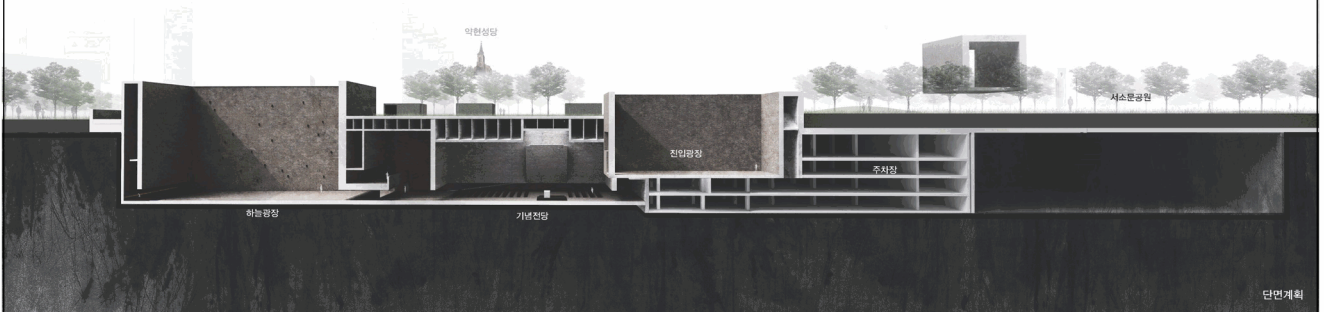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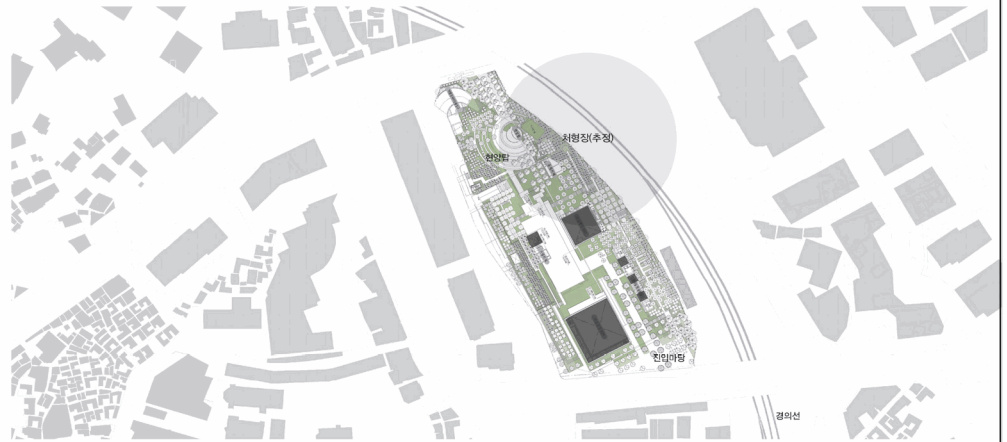
Masterplan

망위 vs 망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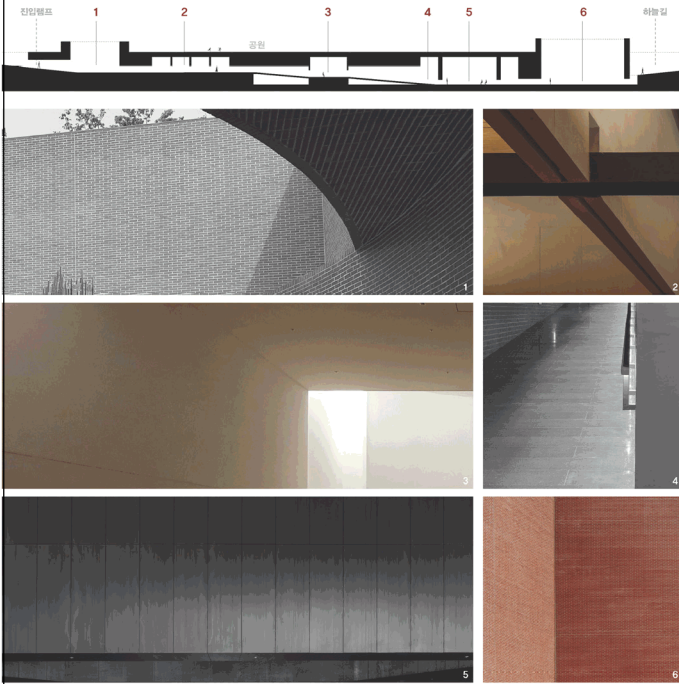
과거의 역사는 기억에 남고, 현실은 삶으로 지속된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 이력된 관계가 아니다. 망위에서 벌어졌던 상처와 기억은 그 땅에 새겨 밀어내며 스며들었고, 우리는 그 땅에 기대어 지금 살고 있는 것이다. 역사에 기반한 현재의 삶이 있다면 그 삶은 땅에 스며든 역사와 직접적으로 관계한다. 이것이 대지의 위와 아래가 하나로 결속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1996년 지어저 활용했던 지하 4개층 11,000여평의 공영주차장 공간을 재편해 역사기념공간을 건립함에 있어 지하와 지상의 관계는 그렇기에 더욱 중요한 건축 개념의 한 축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역사공원에서 그 기념성을 담아 현재의 공공적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기념공간과 그에 기반한 지하 역사 박물관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인 것이고, 그들 간의 관계를 켜켜이 쌓인 시간의 흐름이 망위와 망아래를 넘나드는 공간의 흐름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단초가 되었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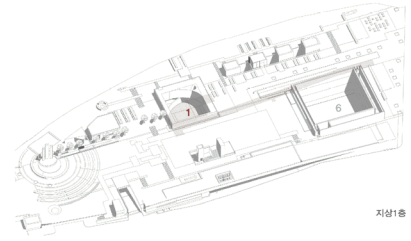


Over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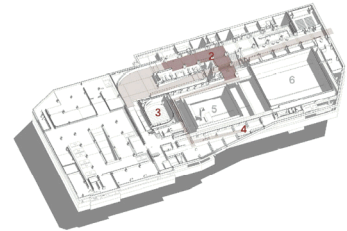


<순례의 길 Dia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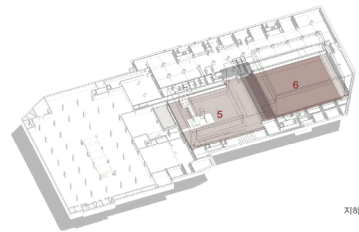
- 1 전입광장
- 2 로비
- 3 정화상기념광장
- 4 매표의 숲
- 5 기념전당
- 6 하늘광장



지상1층



지하1층



지하3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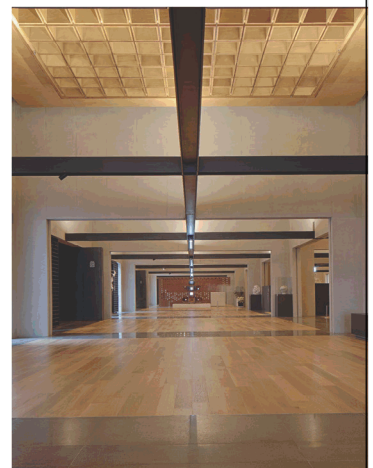
명칭 서소문 역사공원 기념공간 건립공사
 대지위치 서울시 중구 칠메로 5
 지역구분 자연녹지지역 / 공원(역사공원)
 대지면적 21,363㎡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건축면적 668.55㎡
 건폐율 1.8%
 용적률 1.5%
 연면적 24,780.76㎡
 층수 지상1층, 지하4층

B1 전입광장과 로비

그리드 체계 vs 신적 움직임

기존의 지하주차장의 7.5x8.0m 격자모듈이 성지 박물관 공간의 근간이 된 135여개의 단위 입방체 그리드는 2~3층의 다층적 구조로 연속되며 끊임없이 중식, 통합되어가는 형식으로 전개되도록 구성했고, 그 단위그리드는 1.5x1.5m 십자기둥에 의해 독자적 위상을 갖춘 독립적 공간이 되었다. 또한 이는 개별 영역의 독립적 가치가 존중되며 전체 영역까지 이르는 긴밀한 호흡을 유도하는 이중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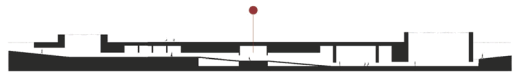
이러한 장소의 고유적 위상에 기반한 호흡의 공간 전개는 도한 300여 미터에 이르는 진입 램프길에서부터 박물관내의 기념전당을 에둘러 하늘광장에 이르는 경로와 다시 지상을 향해 길을 인도하는 하늘길까지의 경로를 통해 순례의 과정으로 극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끝없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심 없이 변화하는 기회를 갖고, 전체시설의 통합적 역할 체계를 마련하는 단초가 되었다.



B2 램프와 정하상 기념경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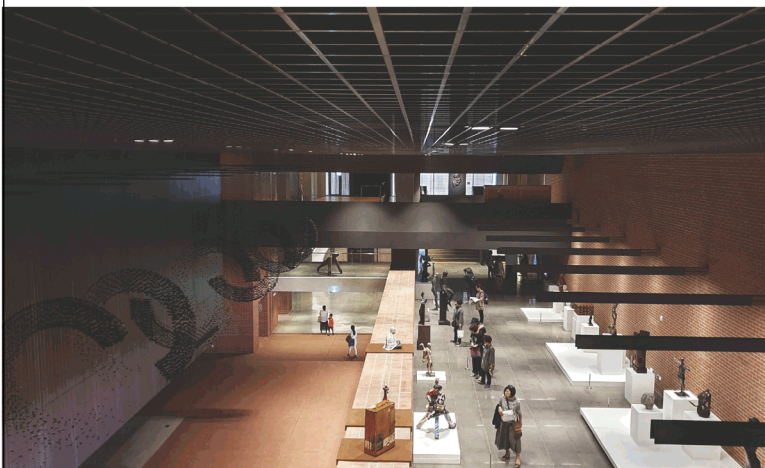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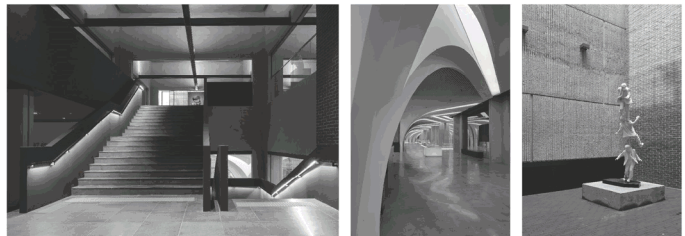
기둥과 보의 두께 30cm 노출콘크리트는 공간은 흘러 연속되지만 단위공간의 고유성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구축적 재료이다. 평속 깊은 곳에서부터 커케이 썰어 공원 상부까지 흘러 올라가는 벽돌은 지상과 지하의 매개적 장치이자 각 공간의 고유성과 그 흐름을 유도해 분위기를 연속시키는 감성적 재료이다. 이는 엄격한 그리드체계의 단위 공간과 관객흐름의 움직임과 함께 하는 공간 전체 체계를 존중하는 순수한 공간과 재료의 조우로 정의되는 것이다.

반면, 또 다른 천연의 재료인 철판과 나무, 그리고 석재는 콘크리트와 벽돌에 이에 공간의 성질이 강화될 수 있도록 덧대는데 쓰인 재료이다. 세공의 묘를 살리며, 구축적 재료인 콘크리트와 벽돌의 보조적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최대한의 절제미를 기했다. 재료의 성질과 축조의 정성을 드러내며, 축종적 재기가 발휘되지 않는 기교를 발휘하려 한 결과이다.



B3 전시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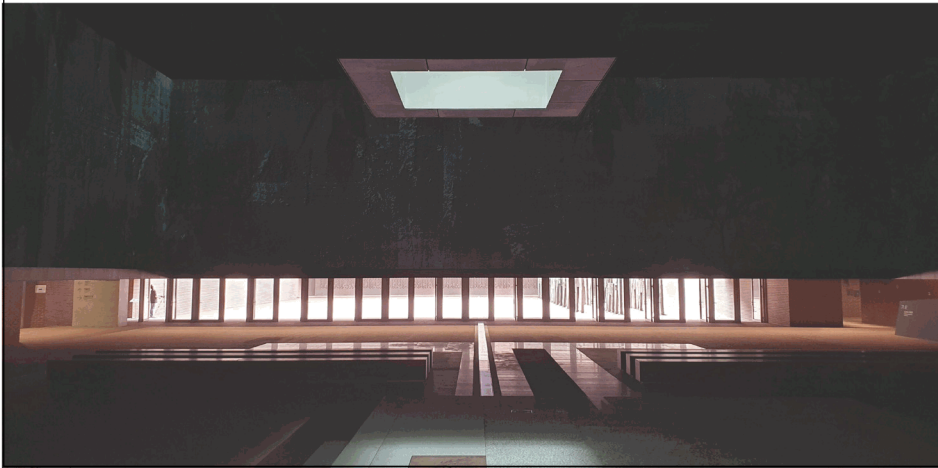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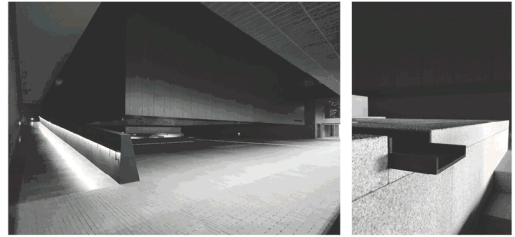
시대의 격변기였던 조선 말기의 시대사, 사회사, 사상사를 다루는 특별 전시공간으로서 이 박물관이 자리한 장소가 함유한 정체성을 드러내 전시공간으로 승화된 영역이다. 이치구조의 현대적 재해석을 통한 입체적 천정공간을 통해 하늘과 맞닿아 역사가 발굴된 땅에 기반한 각종 전시물을 물결처럼 흐르게 배열함으로써 공간적 통일감과 전시적 일체성을 동시에 확보한 전시 방식을 채택하였다.



B3 기념전당

기념전당 vs 하늘광장

경계를 분명히 드러내지만, 누구나 환영하는 두께 1.5m의 사방이 열려 2m 높이로 떠 있는 틈을 통해 자연스럽게 고개 속이는 자세로 경배의 진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된 어둠이 짙게 드리워진 25x25x10m 입방체 튜브인 어둠의 공간이 명속 14m 깊이에 신념을 다한 위인들을 위한 기념의 공간으로 존재한다. 그곳에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작지만 영롱한 빛 우물을 통해 전당의 바닥이 있음을 알린다. 마치 그들의 신념이 여전히 명속 깊은 그곳에서 영원히 바추듯이 그곳은 집회의 공간으로 설정하여 계획되었지만, 어둠의 빛으로 깊이를 알 수 없을 듯한 이 기념전당 자체가 가장 소중한 이 박물관의 전시물이 되고 있다.



B3 하늘광장



기념전당과 대우해 반대편에는 찬란히 하늘로 향한 빛이 번갈아 있다. 기념전당을 거쳐 33x33x18m의 사방이 무표정한 벽돌벽으로 둘러싸여 하늘로 자연스럽게 시선을 유도하는 광장에 도달되는 것이다. 압도하는 스케일에 자기 자신의 미약한 존재감이 각인되지만, 하늘과 교우함으로써 그 존재감은 빛나게 되길 기대하는 공간적 장치이고, 정침의 피날레 공간인 것이다.





Epilogue 하늘길

현세의 삶을 다한 이후 이력된 죽음, 기존 가치와 이력된 다른 믿음, 권력의 횡포에 이력되어버린 도피,
 우리는 이렇듯 하늘과 만나는 지상에서 땅 속의 지하로 이동해왔다.
 그래서 은밀한 장소 안에 그들의 영혼을 지탱한다.
 그림으로 그들의 존재가 없어지지 않고 보존된다.
 비록 실체는 땅 속 깊은 곳에 있지만,
 평강의 열린 하늘과 만나며 비로소 그 영적 존재는 실존으로써 현실과 함께한다.

